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조국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

- 조국해방 75돐에 즈음하여 -

차 례

조국해방의 은인, 절세의 애국자 **김일성**주석 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4
만민의 흠모, 민족의 영광 수예 《범》 5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6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며 8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을 조국청사에 더욱 빛나게 아로새겨주시여 12
사진으로 보는 위인일화 어버이의 기쁨 16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이 받아안은 친어버이사랑 18
평양시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20
인민들이 즐겨 찾는 대동문식료품상점 22
리원땅의 자랑 만년화를 만드는 사람들 24
거리와 일터, 집집마다 넘치는 꽃향기 26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꽃》 - 빙수 29
절승경개 박연폭포 30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세계탁구녀왕 32
수도의 거리를 밝히는 불빛을 지켜 34
부모잃은 학생의 어머니가 된 처녀교원 35
애국애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총련의 7월 36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동포가 되겠다 38
천연건강식품 단나무열매차 40

앞표지: 평양에서 진행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경축 축포발사

뒤표지: 총석정의 여름

반일인민유격대창건을 선포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두번째 줄 가운데 앉아계시는분)

보천보의 밤하늘에 조국해방의 홰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선인민이 나아갈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조국해방을 위한 최후공격명령을 내리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 서거 26돐에 즈음하여 -

수예

《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모택동주석이
주체42(1953)년 10월에 올린 선물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하여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진행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전투적행로에
또 하나의 특기할 사변으로 아로새겨질 정치적결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가 주체109(2020)년 8월 19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지도하시였다.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에서는 우리 혁명발전과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기초하여 새로운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제시하고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문제를 주요의정으로 토의하였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전원회의를 사회하시고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연설에서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과 정부앞에 나선 새로운 투쟁단계의 전략적과업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것을 제의했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에서 토의할 안건들과 대회준비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당 제8차대회를 소집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전원회의 결정서초안을 랑독하시였다.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주체110(2021)년 1월에 소집할것을 결정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소집에 관한 력사적결정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과 국가활동전반을 새로운 상승단계로 조직령도해나가는 우리 당의 자신심의 표출이며 국가의 장래를 걸머지고 자기의 책무를 다해나감으로써 인민들의 하늘같은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려는 우리 당의 강렬한 의지와 엄숙한 맹세로 된다.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굳건히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며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선견지명적인 령도로 인민들의 생명과 국가의 안전을 사수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 7월과 8월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대전과 큰물피해복구사업, 태풍피해방지사업, 태풍피해복구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오늘의 방역형세가 좋다고 자만도취되여 긴장성을 늦추지 말고 전염병류입위험성이 완전히 소실될 때까지 비상방역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것과 관련하여 긴급소집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에서 모두가 당중앙의 두리에 더욱 굳게 단결하여 맞다든 방역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반드시 우리 인민의 안녕과 조국의 안전을 사수하자고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지금 우리 국가는 세계보건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있다고, 당과 정부는 이 두개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옳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립체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에서 세련된 령도예술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방역태세를 계속 보안유지하고 일련의 결함들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전당적, 전사회적으로 강력히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어 태풍피해방지와 관련한 국가적인 비상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고 모두가 승리의 신심드높이 피해복구사업을 하루빨리 결속하기 위한 전격적인 투쟁을 벌려 당창건 75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를 안고 가장 의의깊고 성대히 맞이하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마음한뜻으로 철저히 받들어갈 불같은 열의에 충만되여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7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운영집행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황해남도의 태풍피해지역을 돌아보시며 피해상황을 료해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국해방전쟁참전자들의 공적을 조국청사에 더욱 빛나게 아로새겨주시여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서 뜻깊은 축하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 해도 전승세대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불멸의 위훈은 영원히 우리 후대들의 심장에 뛰는 붉은 피를 더욱 진하게 해줄것이며 그 위대한 정신과 업적은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입니다.》

김 정 은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석하시여 전쟁로병들에게 뜨거운 답례를 보내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제6차 전국로병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에 도착하는 전쟁로병들

전쟁로병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안고 손저어 축하의 인사를 보내는 수도시민들

↑↗⇨ 양덕온천문화휴양지에서 즐거운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돌아보는 제6차 전국로병대회 참가자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7돐경축 축포발사가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어버이의 기쁨

8월은 무덥다.

얼마나 무더우면 삼복철엔 입술에 묻은 밥알도 무겁다는 속담이 다 생겨났겠는가. 그래서 이 계절이면 사람들은 누구나 더위를 피하여 시원한 그늘이나 해수욕장을 찾군 한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인 주체104(2015)년 8월의 그날도 몹시 무더웠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례년에 없는 풍요한 과일작황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따들인 수백t의 사과를 수도시민들에게 보내주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시였다.

과수밭에 들어서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과일들을 받아안고 좋아할 인민들을 생각하니 기분이 좋다고,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고, 나라가 흥할 징조라고 하시며 만면에 환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과일을 먹이게 된것이 너무도 기쁘시여 찌는듯 한 무더위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그곳을 뜨지 못하시였다.

어버이의 기쁨.

남모르게 바쳐오신 천만고생들이 다 락으로만 여겨지시여 이름할수 없는 삶의 희열을 느끼시는 바로 이런 때가 우리 원수님께 있어서 제일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다.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 주체104(2015)년 8월

큰물피해를 입은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이 받아안은 친어버이사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20호 (루계 제26824호) 주체109(2020)년 8월 7일 (금요일)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현지에서 료해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지난 8월초 많은 비와 폭우에 의해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지역에서 물길제방이 터지면서 살림집 730여동과 논 600여정보가 침수되고 179동의 살림집이 무너지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은파군 대청리일대의 큰물피해상황을 보고받으시고 현지에 직접 나가시여 주민들의 생활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일일이 취해주시고 국무위원장 예비량곡까지 해제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보내주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한밤을 꼬박 새우신채 다음날 또다시 현지에 나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대청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살림집들을 최단기일내에 본보기로 건설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쳐주시였다.

인민의 생명안전과 행복을 첫자리에 놓으시고 인민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위대한 어버이사랑이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에게 뜨겁게 가닿았다.

수많은 량곡과 희귀한 수산물 그리고 갖가지 생활용품, 의약품을 비롯한 필수품들을 실은 수송차들이 피해지역에 도착하였다.

은파군 대청리인민들은 친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어린 물자들을 눈물겹게 받아안으며 보답의 마음안고 큰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한 투쟁에 모든 힘을 다 바쳐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글 본사기자

평양시살림집건설에 필요한 기계설비들을 생산보장하기 위해

– 평양건설기계공장 –

사진 라춘송

공장에서 생산한 승강기와 건설기계들의 일부

인민들이 즐겨 찾는 대동문식료품상점

사진 장창욱

리원땅의 자랑
만년화를 만드는 사람들

- 리원공예품공장 -

만년화는 함경남도 리원군에 있는 리원공예품공장에서 이 고장에 흔한 조개껍질을 가공하여 만든 공예품으로서 사람들의 호평이 대단하다.

이들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조개껍질을 가지고 바다를 끼고있는 자기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는 특산품을 잘 만들어볼 결심을 안고 다양한 공예품제작에 달라붙었다. 기능공들의 고심어린 노력끝에 조개껍질을 여러가지 색갈로 가공하는 방법이 도입되고 이에 기초하여 만든 상감 또는 부각형식의 여러가지 공예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 2월 공장의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만든 조개껍질공예 《만경대고향집》을 어버이수령님께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개껍질공예품을 보시고 《만년화》로 부르자고 이름까지 몸소 달아주시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렀지만 공장의 새 세대 기능공들에 의해 조개껍질공예품은 오늘도 리원땅의 자랑으로 되고있으며 만년화라는 이름은 우리 나라는 물론 해외에도 널리 알려지고있다.

사진 리철진, 글 장윤정

만년화 《소백수밀림》(왼쪽)과 《수림》(오른쪽)

거리와 일터, 집집마다 넘치는 꽃향기

사진 리춘송

활짝 핀 꽃들이 미래과학자거리를 이채롭게 장식하고있다.

나팔꽃이 소담하게 피여있는 평양역 앞거리의 화단

만수대분수화초공원에 곱게 핀 꽃들이 사람들에게 류다른 정서를 안겨주고있다.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의 구내

향기로운 꽃들을 피워가는 중구역 동안1동의 한 가정

한여름의 더위를 식혀주는 《얼음꽃》- 빙수

빙수는 얼음을 잘게 갈아 눈과 같이 만든 다음 사탕, 과일즙 등을 섞어 만든 청량음료의 한가지이다.

빙수에는 도마도빙수, 팥빙수, 딸기빙수, 들쭉빙수, 아이스크림빙수, 요구르트빙수 등 여러가지가 있다.

빙수는 시원하면서도 맛 또한 좋아 어른, 아이 할것없이 누구나가 찾는 청량음료이다.

날씨가 무더운 요즘 시내의 곳곳에 빙수매대가 꾸려져 사람들의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고 마음까지 흥그럽게 해주고있다.

사진 방철국, 글 윤금철

빙수매대에서 사람들이 맛좋고 시원한 빙수를 들며 한여름의 더위를 식히고있다.

절승경개

박연폭포

개성시 북부 박연리에 있는 박연폭포는 우리 나라의 3명폭의 하나로서 높이는 37m, 너비는 1.5m이다.

박연폭포는 다른 폭포들에 비해 물이 떨어지는 속도가 빠르고 물소리 또한 요란하며 뽀얀 안개를 일으키는것이 특징적이다.

폭포우에는 너럭바위가 바가지모양으로 패여 박연이라고 부르는 기묘한 못이 있고 그 못 한가운데는 선바위가 있으며 폭포밑에는 락수에 의하여 생긴 고모담이라는 깊은 못이 있다.

폭포의 오른쪽에는 범사정이라고 불리우는 정자가 있는데 그우에 올라 록음방초 우거진 한여름의 박연폭포를 부감할 때면 절로 기분이 상쾌해지고 한껏 달아오른 몸도 가뭇없이 식어버린다.

조국과 인민의 기억속에 영생하는 세계탁구녀왕

- 전 조선인민군 4.25체육단 지도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 박영순 -

세계탁구녀왕이며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인 박영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태여난 그는 학교체육소조에서 탁구선수의 첫걸음을 떼였으며 12살때에는 전국중학교부문 탁구경기대회에서 1등의 영예를 지니였다.

2.8체육단(당시)에서의 선수생활기간 그가 소유한 강의한 정신력은 경기들에서 우수한 성적을 쟁취하게 하였다. 19살 나던 해인 1975년 2월 인디아에서 진행된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단식경기에 참가한 그는 맞다든 강자들을 물리치고 단연 1등을 쟁취하여 세계탁구녀왕의 상징인 왕관, 왕띠와 함께 우승컵을 수여받았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의 영예를 온 세상에 빛내인 그를 체육영웅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그는 그날의 영광을 간직하고 기술을 더욱 련마하여 국제경기들에서 련이어 1등을 한데 이어 영국에서 진행된 제34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또다시 우승하여 2중세계탁구선수권보유자로 되였다.

선수생활을 마치고 탁구선수후비육성사업에 열정을 바쳐가던 그가 31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을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유해를 신미리애국렬사릉에 안치하도록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세계탁구녀왕으로 성장하여 나라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그의 공적은 오늘도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전해지고있다.

사진 장창욱, 글 한진아

제33차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녀자개인단식결승경기의 한 장면

박영순선수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주체64(1975)년 3월

유능한 탁구선수후비들을 키워내던 나날에

신미리애국렬사릉을 찾은 박영순선수의 일가족(2019년 7월 촬영)

수도의 거리를 밝히는 불빛을 지켜

- 모란봉구역가로등사업소 -

아름다운 수도의 거리에 정다운 불빛이 흐른다.

유정한 불빛아래서 보람찬 하루를 돌이켜보며 퇴근길을 재촉하고 다정한 동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밤거리를 거니는 사람들, 행복할 래일을 그려보며 사랑을 속삭이는 청춘남녀들…

하지만 그들속에는 거리의 그 불빛을 지켜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는 참된 복무자들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편집부는 인민들의 행복넘친 모습에서 보람을 찾으며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수많은 주인공들가운데서 모란봉구역가로등사업소 종업원들의 장한 모습을 사진화면에 담는다.

사진 방철국, 글 장윤정

수도의 거리에 깨끗한 량심을 바쳐가는 가로등사업소의 종업원들

부모잃은 학생의 어머니가 된 처녀교원

- 보통강구역 락원고급중학교 교원 리미혜 -

몇해전 강선땅에서 처녀의 몸으로 여러명의 부모없는 아이들을 맡아 키우는 《처녀어머니》가 태여난데 이어 오늘은 평양에서 처녀교원이 자진하여 한 학생의 어머니가 된 아름다운 미풍이 꽃펴났다.

평범한 예술인가정에서 나서자란 보통강구역 락원고급중학교 교원 리미혜는 5년전 김철주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교의 교원으로 배치받았다.

그는 고상한 성품을 지닌것으로 하여 이웃들은 물론 주변사람들의 사랑과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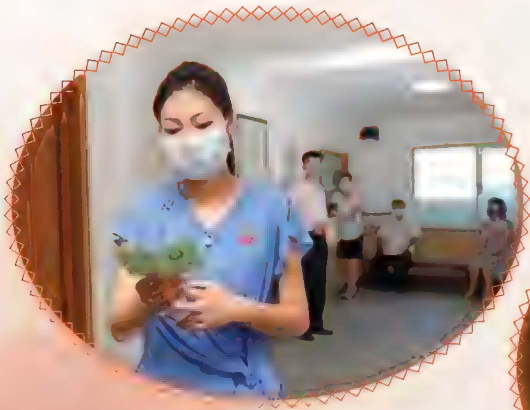
몇해전 학교의 한 학생이 부모를 잃고 함께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년세가 많아 가정생활과 학업에 지장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게 된 그는 주저없이 그 학생의 어머니가 될 결심을 품게 되였다.

그의 어머니와 학교 교원들도 그의 장한 결심을 적극 지지해주었으며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얼마전 김윤미학생은 어머니이름을 리미혜로 등록한 새 출생증을 받아안았으며 따뜻한 정과 향기가 넘치는 새 생활을 시작하였다.

사진 장창욱, 글 윤금철

김윤미학생과 함께 교정을 나서는 리미혜선생



김윤미학생을 자기의 딸로 등록한 출생증을 받아안고

김윤미학생의 생활을 세심히 돌봐주는 리미혜선생

리미혜선생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학교의 교원들

애국애족운동이 활발히 전개된 총련의 7월

조선회관에서 《총련분회대표자대회-2020》(새 전성기 3차대회)을 향한 《〈5개월집중전〉 2단계사업을 총공세로 벌리기 위한 총련 도꾜본부, 지부, 단체 책임일군회의》가 진행되였다.

《총련 니시도꾜 분회장모임》에서는 참가자들이 모든 분회들을 애국애족의 믿음직한 성돌로 굳건히 다져갈 결심을 다지였다.

미나미오사까조선초급학교 새 교사 락성식이 진행되였다.

총련 효고현 고베지부 시노노메분회를 재건하는 총회가 총련 고베지부회관에서 있었다.

녀성동맹 군마현 도모지부 오오따분회에서 진행된 《우리 모범 꽃피우자! 오오따분회 모범분회쟁취궐기모임》의 참가자들

후꾸오까조선초급학교를 더 잘 꾸리는 사업에 참가한 《후꾸오까지부 조선학교를 지원하는 회》의 성원들

조국의 부강번영에 이바지하는 애국동포가 되겠다

-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국장 김영희 -

우리는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2돐을 맞이하게 된다.

이날이 다가올수록 2년전 9월 조국에 체류하였던 나날들이 떠오르군 한다.

그중에서도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면서 받은 감명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전변의 력사가 창조되는 내 조국의 현실을 음악과 무용, 멋들어진 배경대와 무대장치 등의 조화로 얼마나 실감있게 보여주는지 공연이 끝났지만 나는 일어설념을 못하였다.

그날 나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천만이 굳게 뭉쳐 최후승리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나아가는 조국의 앞길을 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는것을 다시금 절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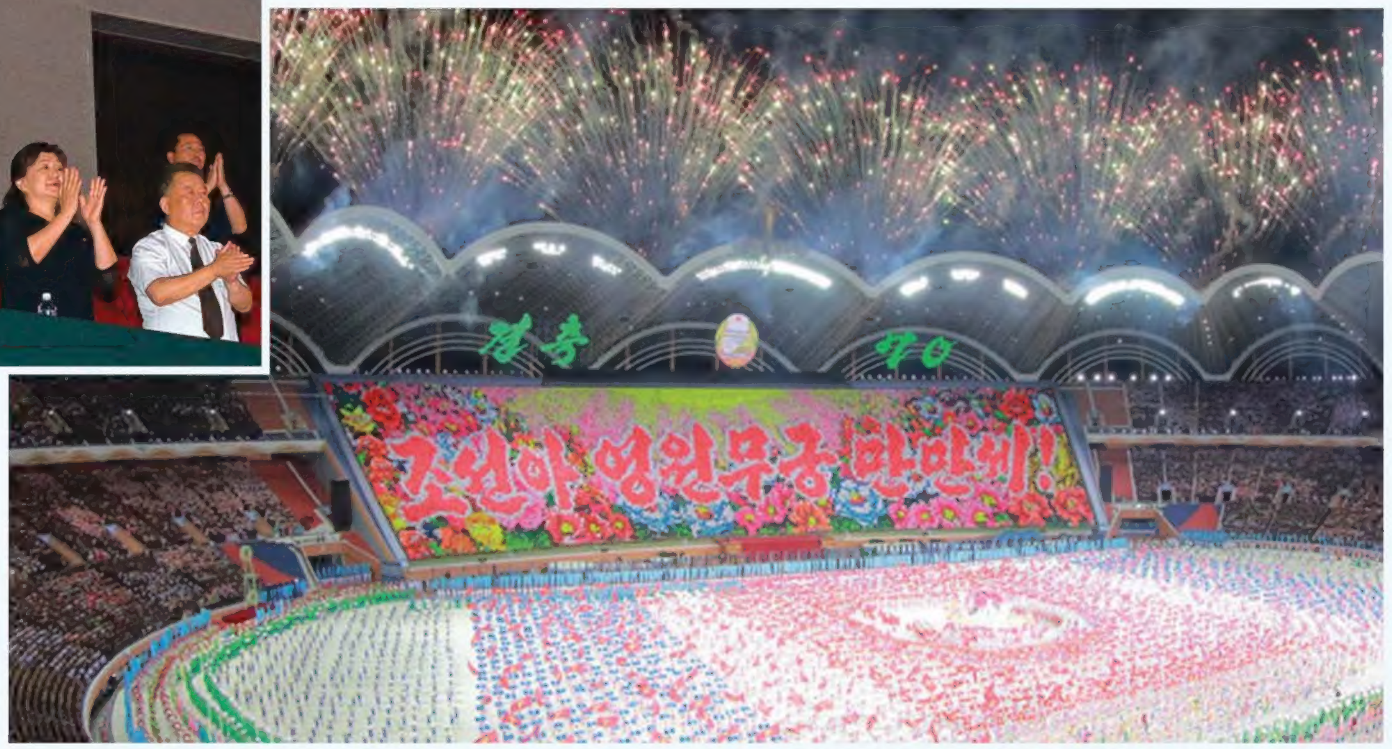
오늘 조국의 현실은 세계보건위기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방역전을 힘있게 벌리는것과 함께 예상치 않게 들이닥친 자연재해라는 두개의 도전과 싸워야 할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러나 나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고 강의한 인민이 있기에 난관은 일시적이고 조국의 존엄은 더욱 빛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

내 비록 해외에서 살아도 언제나 조국인민들과 숨결도 걸음도 함께 하면서 공화국의 부강발전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기 위해 애쓰는 애국동포가 되겠다.

김영희

태양절경축행사준비를 하고있는 김영희국장(2019년 4월 촬영)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빛나는 조국》을 관람하는 김영희국장 (앞줄 가운데)

잡지 《백두-한나》 편집사업을 하고있는 김영희국장

조국방문의 나날 옥류아동병원을 참관하는 김영희국장

명품소개

천연건강식품

단나무열매차

단나무열매차는 사람들의 건강에 유익한 단나무열매를 주원료로 하여 만든 천연건강식품이다.

그 맛이 온화하면서도 감미로울뿐아니라 인체에 필요한 여러가지 비타민과 미량원소, 생리활성물질들이 풍부히 포함되여있어 사람들속에서 이 건강음료에 대한 호평이 대단하다.

단나무열매차를 정상적으로 마시면 피속의 콜레스테롤함량을 훨씬 낮추고 항산화 및 모세혈관확장과 강심작용을 하여 동맥경화증, 고혈압, 심장혈관계통의 질병들을 예방 및 치료하는데서도 효과적이다.

한번에 한봉지씩 하루 여러번 더운물에 풀어 마시는데 입맛에 따라 사탕가루나 혹은 꿀을 조금 두고 마셔도 좋다.

글 본사기자

2019년 10월 촬영

력사유물

《덕수리씨세보》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새로 보관된 력사유물 《덕수리씨세보》

지난해 해주시 산성동에서 살고있는 리연희녀성이 나라에 기증한 가치있는 력사유물인 《덕수리씨세보》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새로 보관되였다.

《덕수리씨세보》는 덕수 리씨의 1대조상으로부터 시작하여 16세기 이름있는 관료이며 학자였던 리이(리률곡)를 비롯한 후손들의 이름과 행적을 기록한 족보책이다.

김일성종합대학과 민족유산보호국, 사회과학원을 비롯한 해당 부문의 일군들과 교원, 연구사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제11차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리연희녀성이 기증한 《덕수리씨세보》가 진품이며 보관가치가 있는 력사유물이라고 일치하게 평가되였다.

해당 부문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현재 덕수 리씨가문의 계보는 여러권인데 1대조상으로부터 10대손까지는 대체로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갈래를 쳐서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한다.

이번에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새로 보관된 《덕수리씨세보》는 앞부분은 덕수리씨가문의 다른 계보들과 같지만 뒤부분은 13대손인 리이의 직계자손들을 위주로 구성되여있는데 감정결과 리이의 족보로서는 유일본이라는것이 확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덕수리씨세보》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에 보관하도록 하며 리연희녀성에게 기부증서를 수여하고 그의 애국적소행을 널리 소개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글 장윤정

《덕수리씨세보》를 나라에 기증한 리연희녀성(2019년 11월 촬영)

❖ 루계 399 ❖ 낸곳 통일화보사 ❖ 사서함 조선 평양 국제우편국 사서함 150 ㄱ-1483ㄷ

ISSN2305 8544

9 772305 854008